



퇴직연금에 투자하자2(요약)(요약)

1. 미국의 401K

- 미국의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로 1981년 도입
- 2000년 8300억달러였던 401K 자산 규모는 2019년 4조 170억달러까지 증가
-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으로 가입자의 적립 규모도 안정적으로 증가

2. 401K 투자자, 주식시장 급락 이후 자산배분 변화

-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식시장의 충격이 오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401K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의 충격이 올 때마다, 주식펀드의 비중을 줄이고 TDF 등 혼합펀드의 비중을 늘렸음
- 위기 이후 비중을 늘린 TDF의 핵심 자산은 주식펀드, 401K 투자자들은 경제 위기를 겪더라도,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 유지

3.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변화의 조짐이 보임

-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펀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운용 규모 증가
- 퇴직연금 주요 펀드 현황을 보면, 채권혼합 유형과 채권 유형의 비중이 높음. 그 밖에는 배당형펀드와 글로벌채권과 글로벌주식 유형이 자산 규모로 상위에 들었음



주식시장 투자전략

1. 미국의 401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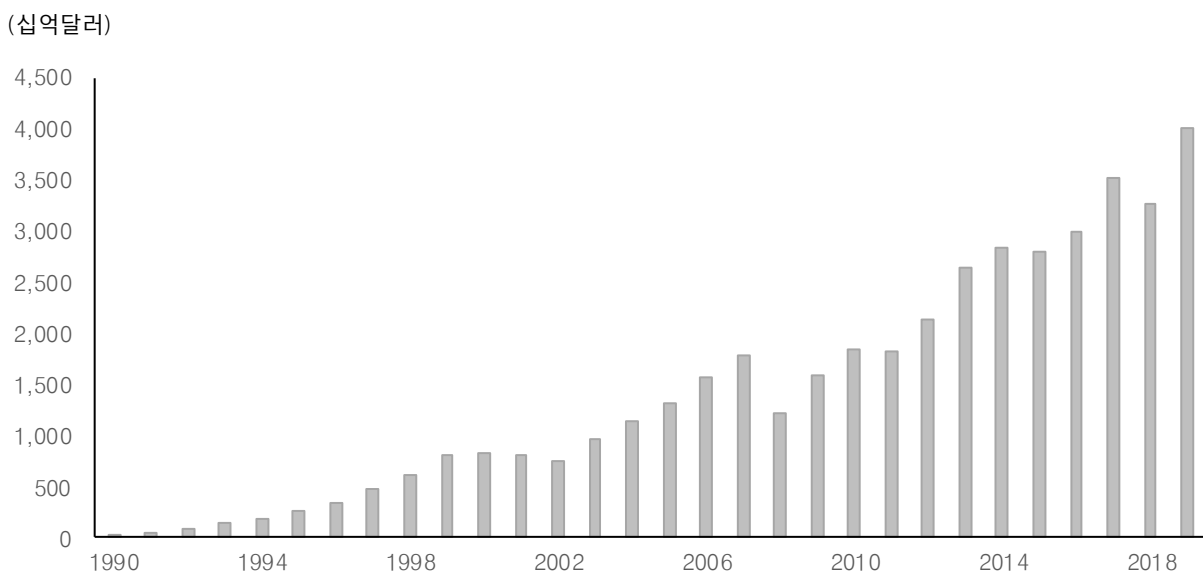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은퇴 이후 생활 유지를 위한 금융자산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고, 금융 자산의 비중이 낮다.

미국의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로 1981년 도입되었다. 401K는 회사와 개인이 임금의 일정비율을 각출하여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 은퇴자산을 관리한다. 401K로 구성된 자산은 주식, 채권, 보험, TDF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30년 이상 401K 제도가 운영되면서, 관련 자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으로 가입자의 적립 규모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8300억달러였던 401K 자산 규모는 2019년 4조 17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주식 비중이 높아, 닷컴버블이나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자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 때가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하락 이후 회복하면서, 401K의 자산 규모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곤 했다.

[차트1] 미국의 TDF 자산 규모



자료:I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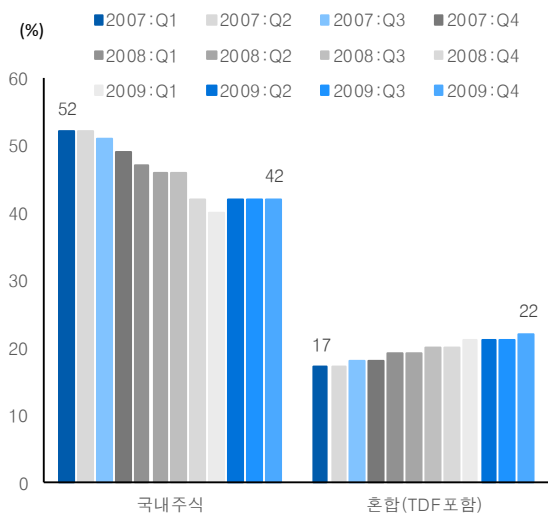
2. 401K 투자자, 주식시장 급락 이후 자산배분 변화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식시장의 충격이 오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401K 투자자들의 경우는 주식 시장의 충격이 올 때마다, 주식펀드의 비중을 줄이고, TDF 등 혼합펀드의 비중을 늘렸다.

닷컴버블 시기를 거치면서 혼합펀드(TDF포함)의 비중은 9%에서 13%로 크게 늘었다.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69%에서 59%로 줄어들었다. 닷컴 버블로 국내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경험한 401K 투자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운용사가 자산배분을 하는 혼합펀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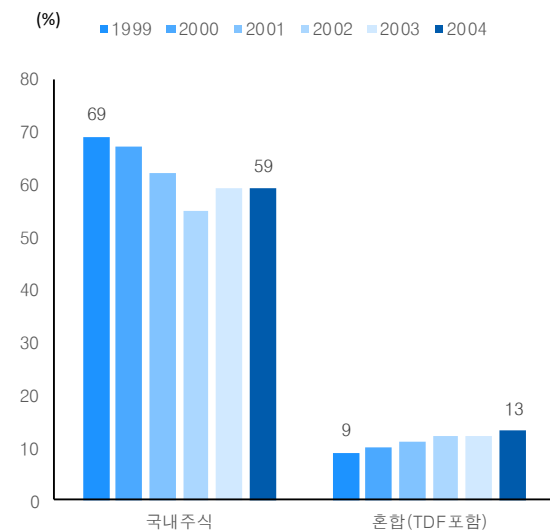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1분기 52%에 달했던 국내주식비중은 2009년 42%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혼합펀드(TDF포함)의 비중은 17%에서 22%로 크게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 리밸런싱의 필요성을 절감한 투자자들은 국내주식 자산을 TDF로 옮겼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산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주식자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인 TDF로 자산을 옮긴 것이다. TDF는 연령대별로 비중은 차이가 나지만, 핵심 자산은 모두 주식이다.

[차트2] 매크로 지표 14개월 연속 감소세로 역대 최장 기간 감소를 기록. 이제는 끝이다



자료: I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매크로 지표 14개월 연속 감소세로 역대 최장 기간 감소를 기록. 이제는 끝이다



자료: I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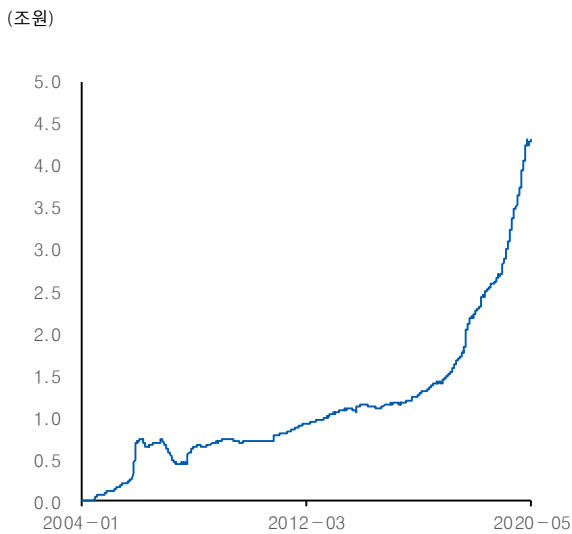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에서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펀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1년 이후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퇴직연금 주요 펀드 현황을 보면, 채권혼합 유형과 채권 유형의 비중이 높다. 그 밖에는 배당형펀드와 글로벌채권과 글로벌주식 유형이 자산 규모로 상위에 들었다. 최근 몇 년 사이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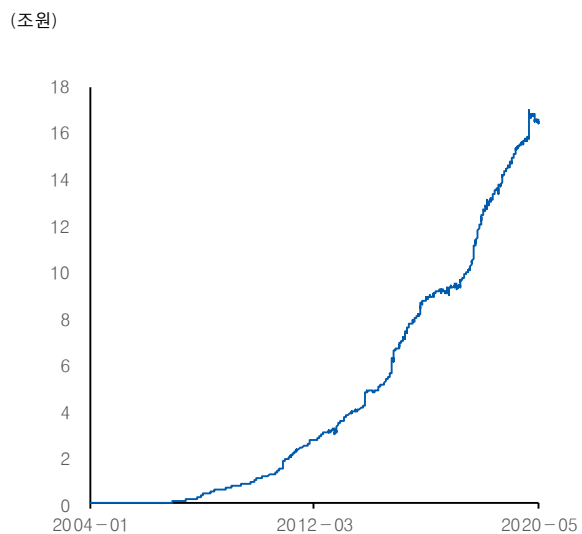
TDF는 2016년 이후 가장 자금이 많이 모이는 투자 유형 중의 하나이다. 은퇴자산의 성격상 운용 자산의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TDF는 연금 자산 운용에 매우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TDF는 은퇴시점을 Target Date로 설정하여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펀드이다.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시기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펀드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점차 높여간다. 은퇴 이후에는 쌓아온 자산을 배분하는 시기로 자산 보존이 자산 관리의 주요 목표가 된다.

[차트4] 라이프사이클펀드 규모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퇴직연금펀드 규모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